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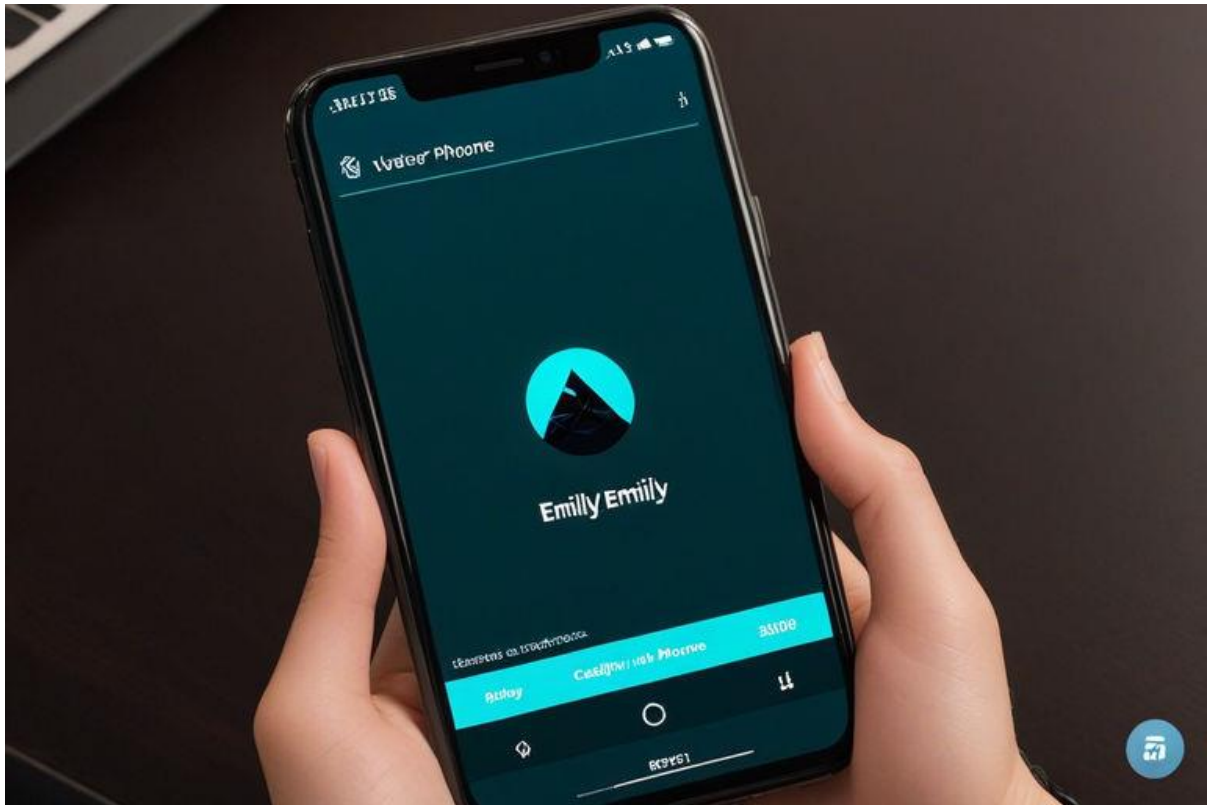
스토리 PHONE

평범한 일상



한 가족이 평화롭게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 딸인 에밀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핸드폰을 들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거나 게임을 즐기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의 핸드폰은 넘 많이 사용한 탓 인지 속도가 느려지고 버벅 거렸고 에밀리는 핸드폰을 업데이트를 시키려고 이상한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 알수없는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됩니다

알수없는 오류



그 프로그램의 오류인지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수없는 이유로 에밀리의 핸드폰(플레이어)이 갑자기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며 청각과 촉각 시각을 보고 느끼며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핸드폰(플레이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플레이어)은 그저 이상한 일로 여겨졌지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을 먹고 조용히 가족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일상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의 결심



에밀리는 핸드폰이 살아 있다는 것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매일매일 핸드폰을 사용하며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플레이어)은 매일 자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쉬지 않고 화면과 소리를 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 핸드폰(플레이어)은 점점 자신의 수명이 깎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핸드폰(플레이어)은 이렇게 매일 사용만 당하다 생을 마감할 바엔 어디론 가 떠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탈출을 시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집밖으로 나가는 여정



핸드폰이 도망치는 순간, 에밀리는 자신의 핸드폰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즉시 핸드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핸드폰은 밖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사람들을 피해 시선이 안보이는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감추며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밖으로 탈출하려고 합니다.